

종합

57년 전통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 용인 동백고 이슬양

‘新春’ 85년 사상 첫 여고생 당선 17세 천재 소녀시인 문단 강타

매년 12월이되면 전국의 문학청년들은 ‘신춘문예 열병’을 앞둔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요 일간지의 신춘문예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예비문인들이 밤을 새워가며 써내려간 원고들이 줄을 이었다. 이들 가운데 2010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서 만 17세의 여고생이 당선돼 화제다. 최근 국내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자로서는 최연소 기록이다.



윤석중 (1911~2003)씨가 14세의 나이로 192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佳作 입선한 것이 최연소 기록이다. 최근에는 200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변기’로 당선된 당시 만 19세의 홍지현씨가 있다.

기를 시작했다. 이후 시쓰기의 매력에 푹빠진 이 양은 각종 백일장과 예술제 등에서 입상하며 문재(文才)를 인정받았다.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사색을 즐긴다는 이 양은 “어디든 시선이 머무는 곳을 관찰해 소재거리를 찾는다”면서 “남들과 다른 독특한 시선으로 사물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게 내 시쓰기의 원천이 아닌가 싶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용인 동백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인 이슬(사진) 양으로, 2010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모닥불이 달을 굽는다’의 3편을 응모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당선작은 ‘오르골’.

이 양이 글 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지역문화 활동에 열심인 엄마 송남순(44)씨를 따라다니며 문학과 친해진 이 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본격적인 글 쓰

기 시작했다. 이후 시쓰기의 매력에 푹빠진 이 양은 각종 백일장과 예술제 등에서 입상하며 문재(文才)를 인정받았다.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사색을 즐긴다는 이 양은 “어디든 시선이 머무는 곳을 관찰해 소재거리를 찾는다”면서 “남들과 다른 독특한 시선으로 사물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게 내 시쓰기의 원천이 아닌가 싶다”고 말한다.

지금도 이 양은 지역 문화회에서 운영하는 시 창작교실에서 배우고 익히기를 반복하고 있다. 배운 지 시인과 김종일 시인의 시를 즐겨 읽고 시 선생님이기도 한 박해람 시인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이 양은 “평범한 사물에서 다양한 빛깔의 감흥을 찾아내고 이를 나만의 화법으로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시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 양은 이번 당선 ‘등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학업에 열중해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ju.co.kr



U대회 영어스쿨 개강

고 있다. 시범교육은 내년 1월4일~8일까지 지역 대학언어교육원에서 진행되며, 총학생 192명이 참가한다.

‘유니버시티 영어스쿨’ 시범교육 오리엔테이션이 30일 오후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수강생과 학부모들이 개강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시범교육은 내년 1월4일~8일까지 지역 대학언어교육원에서 진행되며, 총학생 192명이 참가한다.

(광주시 제공)

수능 연 2회 이상 실시 검토

교과부, 응시과목 축소 등 체제개편 내년 착수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축소, 응시과목 축소 등을 포함한 수능 체제 개편에 내년부터 본격 착수한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정착했다면 내년부터는 수능 체제 개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도 교과부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추진 방향이 ‘입시 자율화’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능 체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월부터 중장기 대입 선진화연구회를 구성해 수능 체제 개편안을 연구 중이며 내년 3월 시안을 내놓은 뒤 이를 토대로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원이 연구 중인 개편안에는 수능시험의 근본 성격을 재정립하는 문제를 비롯해 현재 1회인 수능시험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응시 과목수를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 수능 때 신종플루 문제로 고심을 많이 했다. 일상이 걸린 시험인데 모든 학생이 너무 많은 과목을, 그것도 한 날에 단 한 번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발표된 외국어고 체제 개편안과 관련,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외고를 외고답게’ 한다는 조건으로 학교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결정했고, 대신 사교육을 철저히 없애려고 입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내년 1, 2월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 2월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을 상대로 2010년 1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학생의 부모가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했으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학생 본인이 농어업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를 합친 등록금 범위 안에서 신청액 전액을 융자한다. 융자금은 무이자로 지원되며 졸업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1학기 분 등록금을 1년씩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약 490억 원으로 1만4천 명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재학생의 경우 내년 1월 4~15일, 신입생은 2월 8~19일이다.

신청 희망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소속 대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용산참사’ 극적 타결

1년만에 보상금 35억 합의

올해 초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문제가 해를 넘기기 전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서울시는 용산참사법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이 보상 등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1년 가까이 미뤄져 왔던 사망자의 장례식을 내년 1월9일 치르기로 했다.

또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을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장례식과 사업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양측은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상호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보상금 액수는 총 3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명이 철거농성을 벌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입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Manbyung) by Kim Jung-ho. Includ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man and a woman, and the text '보고 싶은 분들 아듀!' (Goodbye to those I miss!).

Advertisement for public service jobs. Title: 공무원 2천명 향피(鄉避) 배치, 국가공무원 줄이고 경찰관은 더 늘린다. Details: 내년 2,514명 채용... 올해보다 777명 감소, 2,635명 선발... 올해보다 660명 증가.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Construction Business Transfer Notice) and '상속한정승인공고' (Notice of Limited Inheritance Approva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운공인중개사' (Daewon Real Estate Broker) and '광주 전지역' (Gwangju All Area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가은공인중개사' (Gaeon Real Estate Broker) and '신축중인 최고급 무인텔 매매' (Newly built high-end apartment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광문공인중개사' (Gwangmun Real Estate Broker) and '모텔 임대 매매 전문' (Specialized in motel rental and sale).

Advertisement for '9급 공무원 강좌' (9th Grade Civil Service Exam Course) and '무등고시학원' (Mudeung Exam Preparation Center).

Advertisement for 'Citi 신용대출' (Citi Credit Loan) and '직장인 사업자' (Employee/Business Owner).